

## '89~'90 편집위원장을 마치면서



김 충 기

(前 편집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989년과 1990년 2년동안 본학회의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막중한 중책을 대과없이 수행해온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느껴온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권옥현, 오명환, 한민구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학회지의 특집을 맡거나 집필해주신 guest editor 여러분과 수많은 논문의 심사를 맡아서 애써주신 편집위원, 심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집업무를 맡아서 차질없이 수행해준 학회사무국의 최용현 과장님과 전필준 군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학회지의 편집은 한민구이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전기전자분야의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이 부상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집으로 다루는데 주력했습니다(표1 참조).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전기공학분야에 대해서 소홀히한 결과가 되어 일부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호를 특집으로 꾸미다보니 일반원고를 다루는 지면도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점 애석하게 생각하며 신임 편집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습니다.

두번째로, 논문지는 게재편수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표2 참조), 또 논문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환 이사님과 담당편집위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심사위원들의 치밀한 심사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논문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더러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역시 신임편집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표 1. '89~90년도 학회지 특집 현황

구분	월별	특 집 내 용	담당위원	편수
1989년 (제 38 권)	1월	기술현황(기술해설)	—	4편
	2월	신경회로망	이수영	6편
	3월	Power Plant Control	권옥현	7편
	4월	DRAM	진대제	5편
	5월	방사광가속기	장수영	8편
	6월	고속형 전철시스템	김용주	8편
	7월	슈퍼 컴퓨터	허 찬	6편
	8월	의용영상공학	나종범	6편
	9월	EMI/EMC	김세윤	6편
	10월	평판표시기술	오명환	6편
	11월	예방진단	김길상	6편
	12월	'80년대를 되돌아 보면서	한민구	11편
1990년 (제 39 권)	1월	'90년대를 전망하면서	김충기	5편
	2월	기술현황	—	2편
	3월	전자장의 수치해석	정현교	9편
	4월	21세기의 전기학회의 위상	권옥현	5편
	5월	인공위성	최순달	6편
	6월	공장자동화기술	김광배	8편
	7월	DTP(전자출판)	조동섭	7편
	8월	전력계통의 전문가시스템 응용	문영현	6편
	9월	직선운동형 전동기 특집	이은웅	6편
	10월	태양광 발전	송진수	7편
	11월	2000년대를 향한 원자력발전	전재풍	7편
	12월	퍼지의 이론 및 응용	변증남	5편

세번째로, 영문지는 창간당시('88년)부터 전자공학회와 공동발간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아 우리 학회 단독으로 년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터가 닦여진 것으로 봅니다.

네번째로, 1989년부터 신설된 학술대상 수상자 추천문제를 박영문회장으로부터 편집위원회에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첫째는 수상기일이 너무 촉박하여 논문지 게재편수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만, '90년도에는 권옥현이 사계서 심사기준마련에 애써 주셨고, 또 추천위원들의 열띤 호응도 있어 훌륭한 논문을 추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있었던 일로 기억됩니다.

표 2. 분야별 게재논문편수현황

분 야(논문지)	'89년	'90년	합계
전력계통	12편	18편	30편
전기기기	12편	16편	28편
전력전자	16편	23편	39편
전기재료 및 반도체	21편	22편	43편
방전 및 고전압	7편	11편	18편
파동 및 양자전자	5편	1편	6편
제어계측	22편	29편	51편
로보틱스 및 자동화	12편	17편	29편
컴퓨터 및 응용	5편	6편	11편
통신시스템	1편	—	1편
회로 및 신호처리	1편	2편	3편
의용생체공학	1	—	1편
에너지	—	1편	1편
인공지능	—	1편	1편
Journal of KIEE(영문지)	18편	17편	35편
합 계	133편	164편	297편

생각컨대,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일 중에서 간행물 보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점에서 학회간행물의 질적향상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온 결실을 꾸준히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능이 다수 미흡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새로 편집업무를 맡게 되신 편집이사님들,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건투와 분발을 기대해봅니다.

1991년 2월